

# 미혹홀 119즈토리

인천소방본부 2018. 가을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씨 : 계양소방서장 박을용 作



INCHEON FIRE DEPARTMENT  
인천소방본부





# 인천을 안전하게

그림 소방사 이병화  
캘리그래피 소방장 김용인

| On the occasion of the publication of 'the story of Michuhol 119' in autumn 2018 |

# 2018년 가을호 '미추홀 119story' 발간에 즈음하여

인천광역시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면적이 넓고, 그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며 인천 국제공항, 송도국제도시와 도서지역이 공존하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소방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에 발맞추어 지역사회에 산재한 안전 취약요소 해소를 위한 선제적 소방서비스 추진과 현장중심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화재안전특별조사, Top-Down 방식 비상대응체제 등 새로운 예방대응방안이 수립되었으며 인천소방의 전 직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믿음직한 119의 이미지는 기본에 충실하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쌓는 공든 탑과 같은 것입니다.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분야별 활약과 더불어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성숙한 안전의식을 함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소방본부장 김영중  
The Chief of Incheon Fire Service

「미추홀 119story」는 생활안전수칙을 비롯한 소방지식, 각종사건사고 사례, 직원들의 생생한 현장활동 경험담 등 다양한 소방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소방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작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소방의 활약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대 시민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ncheon Metropolitan City has the widest area among all the major cities in Korea, and is the only city where the population is still growing. The city displays unique features that the international traits such 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ong-do and Cheong-la cities and the nearby isles coexist to make a metropolitan. Incheon is also a city with various and rapidly changing firefighting environments.

Walking in step with the city's development, Incheon Fire Department Headquarters is making every effort to establish pre-emptive fire fighting services and a field-based safety system to relieve safety vulnerab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to live up to citizens' expectation, Incheon Fire Department has launched the new Prevention and Action Plan of a grand-scale special inspection for fire safety and a Top-Down emergency action system, and all Incheon firefighters will do their utmost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119 images that are trusted by citizens are like public towers built by steady efforts to be faithful to the basics. In order to make a safer city of Incheon, we must cultivate mature sense of safety in harmony with the citizens along with the activities of the Incheon firefighters in each field.

The story of Michuhol 119 has been published to share and communicate with citizens about a wide range of firefighting-related information, including public safety rules, firefighting knowledge, all sorts of fire-related accidents, and the vivid stories of rescue teams in field. It is also hope to boost firefighter's vitality in Incheon Fire Department.

I believe that giving the wide public the active performance of Incheon Fire Department will highly encourage firefighters and help improve the citizens' trust on us. I wish you and your family a healthy and happy life. Thank you.

# Contents

## | FIRE SERVICE IN INCHOEN |

### | 인천소식 |

2018년 상반기 인천소방의 하루	05
공항 GKG 기내식 공사현장 화재	06
서구 이레화학 화재	08
중구 차량해상운송 선박 화재	10
남동공단 전자제품 공장 화재	12
119 LOVE DAY	14
소방본부장기 차지하기 축구대회	16
제17회 119소방동요대회	17

### | 국내소식 |

화재안전특별조사	18
소방법령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20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21
주·정차 위반구역	22
실천하는 안전습관	23

### | 해외소식 |

캘리포니아 "소방대원들 화염과 맞서 싸우다"	24
--------------------------	----

### | 소방관이야기 |

세상에 하나뿐인 소방안전 동화책	25
붓 끝에 마음을 담다	26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28
저는 119구급대원입니다	29
그들의 삶을 동경하라!	30
활기찬 직장생활 문화조성!	31
화재진압전술 경연대회를 참가한 후	32
구급대원으로서	33

### | 시민이야기 |

기도하는마음으로	34
땀과 웃음의 동요대회를 마치고	36
그대 왜 소방을 선택했나	38

발행인	인천소방본부장 김영중
발행일	2018년 10월 15일
발행처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190
전화	032)870-3075
홈페이지	<a href="http://new119.incheon.go.kr">http://new119.incheon.go.kr</a>
ISSN	2635-6546
기획·편집	김현희, 이경철, 강성은, 변태우, 이병화
번역·검수	정은송, 최병기
디자인	(주)착한넷 070)7092-0999 <a href="http://www.chakan.net">http://www.chakan.net</a>



# 2018년 상반기 인천소방의 하루

화재진압	5건
인명구조	25건
응급이송	273건
생활구조	35건
의료상담	164건



1일 총 502건  
3분 마다 1건 처리



4시간 마다 1건 처리

57분 마다 1건 처리

5분 마다 1건 처리

41분 마다 1건 처리

8분 마다 1건 처리



**화재진압** 전년대비 : 화재 0.1% ↑, 인명 35.4% ↑, 재산 196% ↑  
화재발생 : 858건 (857건)  
인명피해 : 65명 (48명) [사망 5명 부상 60명]  
재산피해 : 25,890백만원 (8,746백만원) [부동산 9962백만원, 동산 15,92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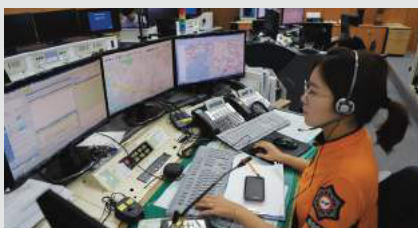
**인명구조** 전년대비 : 구조건수 14.9% ↑, 구조인원 9.4% ↑  
구조건수 : 4,488건 (3,906건)  
구조인원 : 2,346명 (2,144명)



**응급이송** 전년대비 : 이송건수 7.2% ↑, 이송인원 7.4% ↑  
이송건수 : 49,364건 (46,045건)  
이송인원 : 50,329명 (46,8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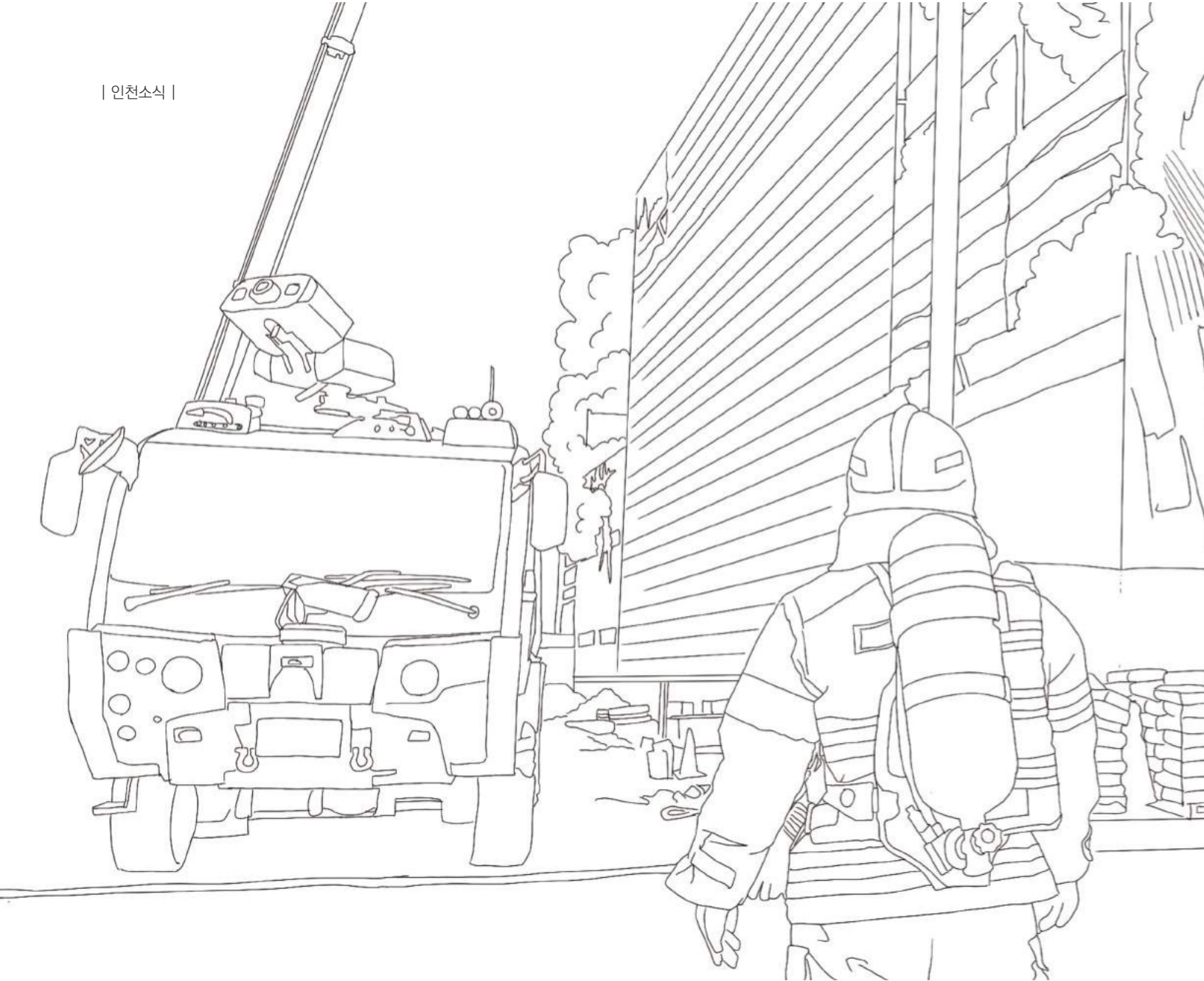


**생활구조** 전년대비 : 처리건수 31.9% ↑, 구조인원 0.5% ↑  
생활안전건수 : 6,354건 (4,816건)  
구조인원 : 1,146명 (1,140명)



**의료상담** 전년대비 : 상담건수 4.9% ↑  
상담건수 : 29,640건 (28,261건)

\*( ) - 전년도 건수



| Incheon Airport GKG In-flight meal Construction Site Fire |

## 인천공항 GKG 기내식공사현장 화재

인천소식 1. GKG(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제조공장 화재

3월 25일 오전 10시 41분.

2018년 7월부터 시작되는 아시아나 항공사 기내식 납품을 위해 공항 지원단지 내 연면적 22,000m<sup>2</sup> 규모로 신축 중 이던 'GKG 기내식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공사장 3층에서 화재는 삼시간에 번져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260여명의 근로자가 있었지만, 신속하게 대피해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일은 피할 수 있었으며 진압대원 한명은 일순간 덮쳐오는 화염에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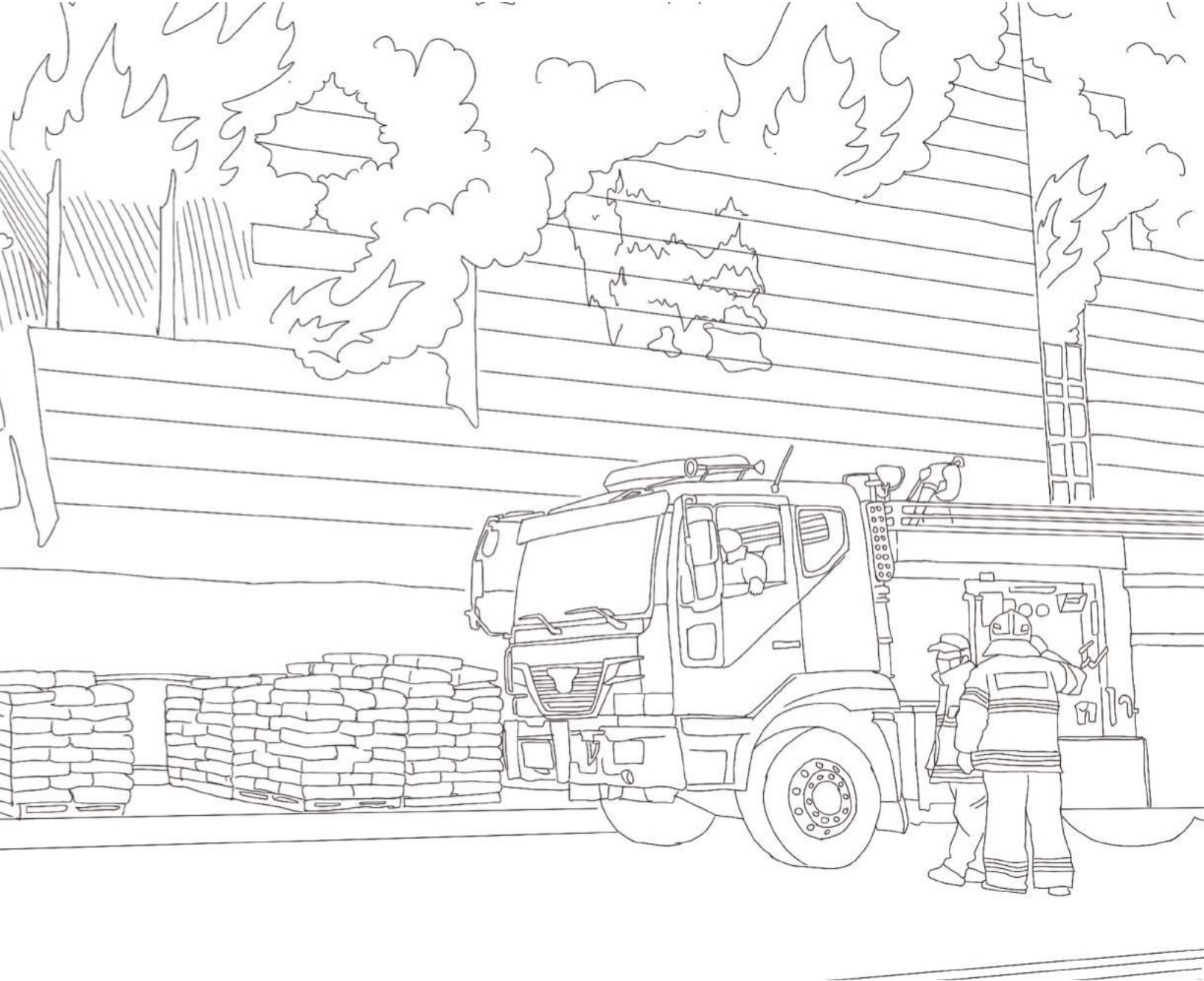
높이에서 탈출하다가 부상을 당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날, 소방본부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입체적인 화재진압활동을 펼쳐 2시간 20분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부상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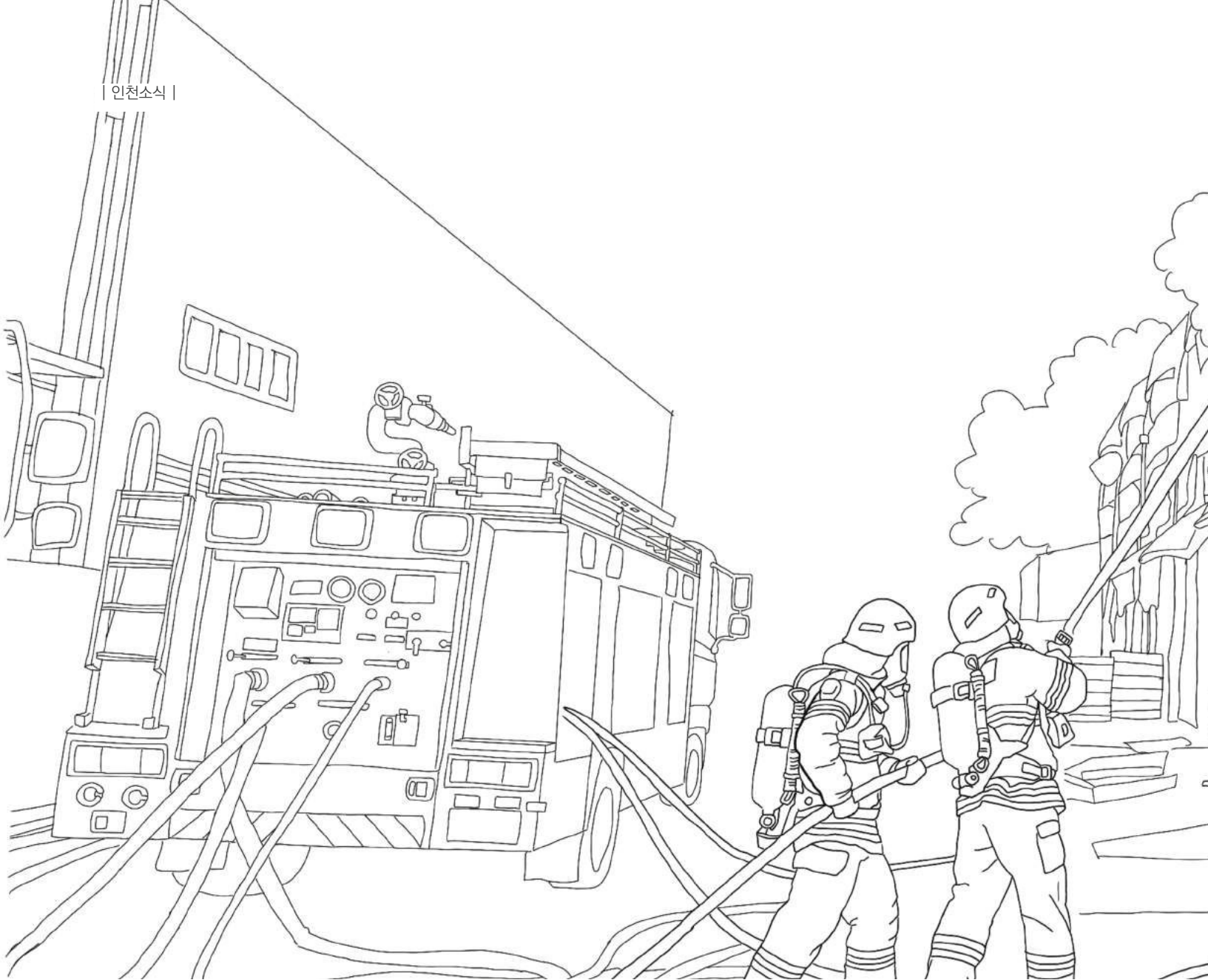
**화재 피해액만 55억원(부동산 : 54억원, 동산 : 1억원)**

화재 진압과정에서 급격하게 커진 화세로 대원들이 일순간 건물에 고립되었다가, 탈출했던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다.









| Western Ire Chemical Fire |

## 인천 서구 이레화학 화재

인천소식 2. 이레화학 화재

4월 13일 오전 11시 47분

인천시 서구 일대가 검은 연기에 뒤덮였다.

서구 가좌동 통일공단 내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업체 '이레화학'에서 한 근로자가 폐유가 담긴 용기를 옮기려다가 불이 붙었다. 순식간에 번져버린 화재는 이레화학을 포함, 인근 공장 6곳을 불태웠고,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도착한 소방차까지도 집어삼켰다.

부상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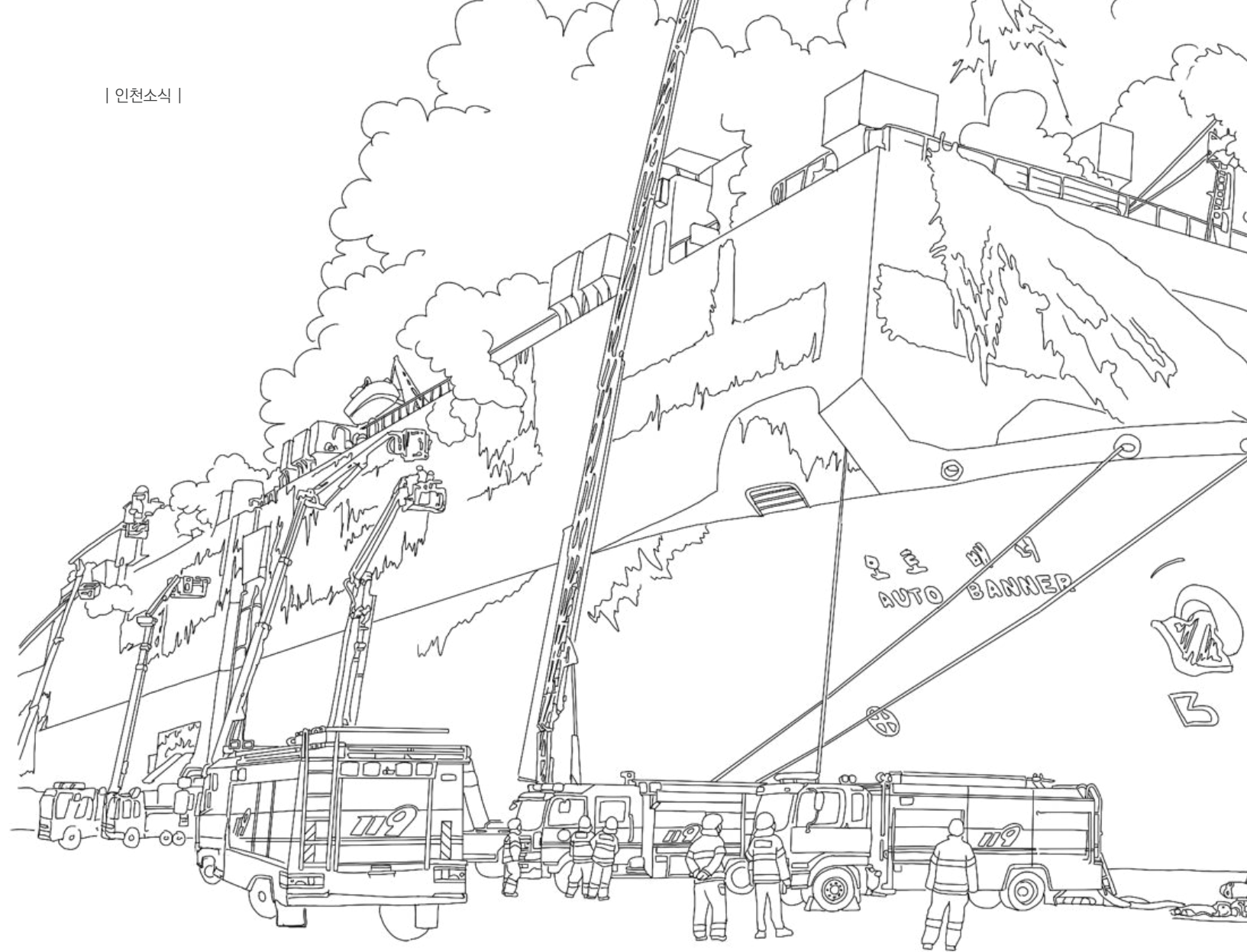
화재 피해액은 45억원(부동산 : 12억원, 동산 : 33억원)

화제가 커짐으로 인해 주차했던 차량들이 탈출하고 있던 찰나에 불이 붙은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전소된 차량에 타고 있던 대원은 차에서 탈출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천만 했던 순간이었다.







| Fire on the Cargo Ship carries Vehicles on the Sea by the Central District |

## 인천 중구 차량해상운송 선박 화재

인천소식 3. 오토배너(AUTO BANNER)호 화재

5월 21일 오전 09시 39분.

인천 시 중구 인천항이 연기에 뒤덮였다.

자동차 운반선인 오토배너호(파나마 국적) 11층 갑판에 선적된 중고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목격자이자 갑판장은 초기에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하였지만 이내 실패로 돌아가고, 주위에 있던 중고 차량들을 집어 삼키면서 선박 전체로 번져나갔다. 화재가 급속히 진행된 이유는 선적한 중고차량에 대부분 연료가 들어있었고, 차량 간 간격이 지나치게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대원들은 화점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열기와 농연, 매우 조밀하게 적재된 차량들이 고열에 변형되거나 녹은 장애물이 존재하여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다른 작전으로 천공작업을 통한 농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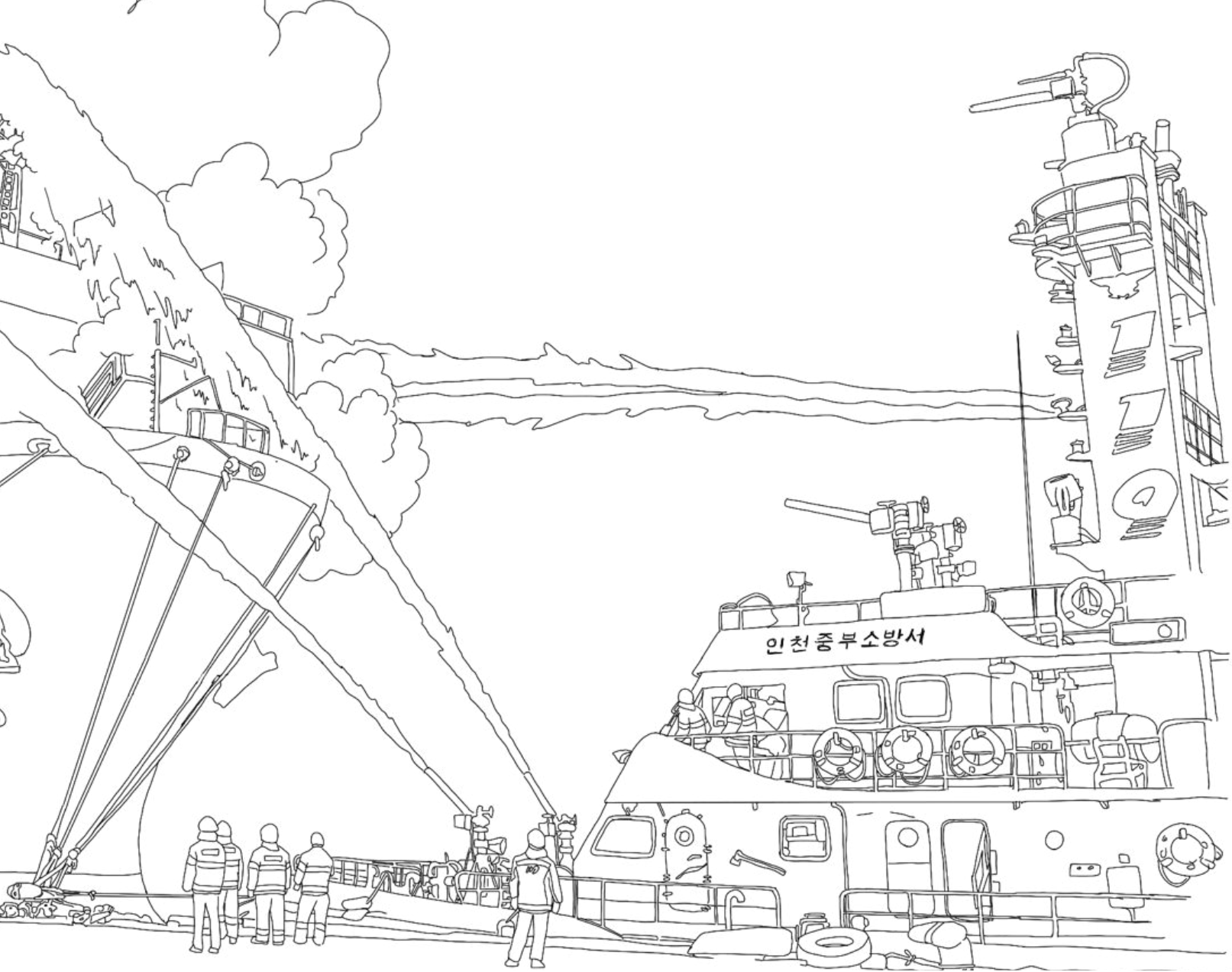
열기를 배출하려고 시도했지만, 선박갑판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 파괴용장비가 힘을 쓰지 못했다. 선박 내부로 접근은 못하였지만, 인천의 소방정과 경기도, 서울, 충남지역의 고가구출절차 등 특수장비들이 적극 동원되어 외부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해나갔다. 그 결과 67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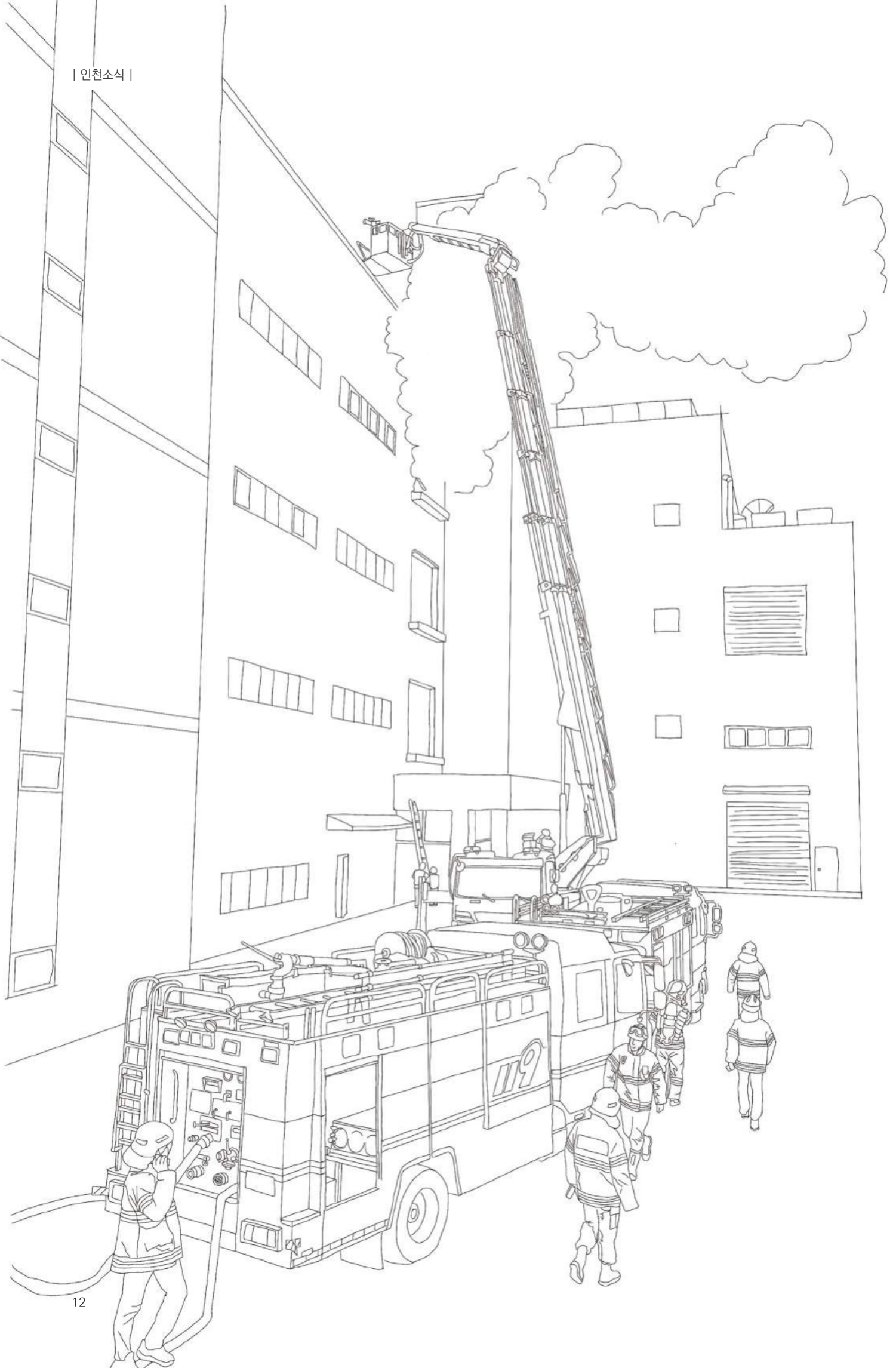
**부상 1명**

**화재 피해액 75억원(동산:75억원)**

다행히 선박에 있던 선원들은 신속히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압활동을 하던 소방대원 한명이 낙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 Southeast industrial, Electronics factory fire |

## 인천 남동공단 전자제품 공장화재

인천소식 4. 세일전자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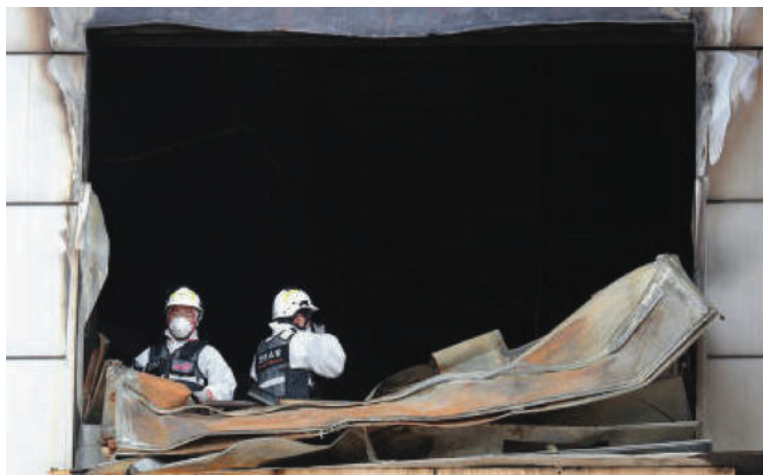
6월 21일 오후 3시 43분.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4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천장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천장과 내부 벽면을 이룬 샌드위치 패널 등이 화재를 급격히 키웠다. 화재 직후 많은 수의 근로자들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나, 한 순간에 불이 붙은 가연물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과 시꺼먼 농연으로 외부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

사망자 9명, 부상 6명

화재피해액 2억2천만원(부동산:1억,동산:1억2천)

세일전자 화재는 해방 이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 세 번째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기록되었다.





## 119 LOV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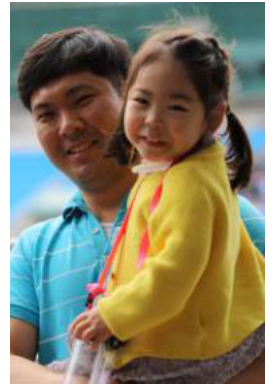
인천소방본부! 시민과 소방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안전문화 확산과 화합의 장 마련!

2018년 5월 20일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가족 등 1000여명이 모여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평소 인천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소방가족을 초청하여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 인천소방 본부가 준비한 시축행사, 퍼포먼스와 소방 안전 체험장, 119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도 경험할 수 있었다. 볼거리와 할거리가 넘쳤던 것만큼 소방가족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행사였다.







• 소방본부 가족분들의 즐거운 행사현장



## 소방본부장기 차지하기 축구대회

2018년 6월 27일

### | Fire Headquarter Football Championship |

소방본부에서는 직원상호간의 'Sportman-Ship'으로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 6회 소방본부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서구 아시아주경기장 등 3개소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인천소방대원 250여명이 참가한 11팀이 경기를 벌였다. 이는 직장 내 건전한 취미활동 활성화로 화합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본부와 소방학교, 10개의 소방서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

함과 동시에 대원들의 체력을 강인하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경기는 11시부터 18시 30분까지 행사가 이루어졌고 전 선수단이 폐막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아쉽게 탈락한 팀들을 대상으로 번외경기를 진행하였다. 축구대회를 통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동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날짜와 시간대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 17th Incheon Metropolitan City 119 Fire children's song contest |

## 제17회 인천광역시 119소방동요대회

2018년 7월 4일



제 17회 119소방동요대회가 인천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5~30명으로 구성된 20개의 합창 팀이 경연을 이루었으며, 09:00부터 17:00까지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대회는 인천 전 지역에서 모인 유치부, 초등부 20개팀 600여명이 한자리에서 즐거운 동요를 부르며, 소방안전에 대해 배우고, 안전의식을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함께하여 교육분야와 소방이 어우러지는 안전 문화행사의 장이 되었다. 이날 참석한 아이들과 관객들을 위해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대원들이 전진배치 되어 안전에 힘썼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은 전국대회로 나갈 기회가 주어졌다. 아래는 대회시상 내역이며, 20개 팀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두 훌륭한 기량을 선보였다. 참가팀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들과 소방대원들이 동요로 하나가 되었던 만큼 의미가 큰 화합의 장이었다.

구분	유치부	초등부
대상 인천시교육감상(2) / 지도상(2)	<input type="checkbox"/> 미예뜰유치원(남동) / 이승원	<input type="checkbox"/>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계양) / 김정아
최우수상 인천광역시장상(4) / 지도상(4)	<input type="checkbox"/> 청천 2동어린이집(부평) / 김빛나 <input type="checkbox"/> 구립운서어린이집(영종) / 박희정	<input type="checkbox"/> 영화초등학교(중부) / 김은정 <input type="checkbox"/> 인천영종초등학교(영종) / 이지우
금상 인천광역시의회의장상(6)	<input type="checkbox"/> 청라국제어린이집(서부) <input type="checkbox"/> 경인여대부속유치원(계양) <input type="checkbox"/> 하늘유치원(남부)	<input type="checkbox"/> 인천구월초등학교(남동) <input type="checkbox"/> 인천영송초등학교(송도) <input type="checkbox"/> 인천석암초등학교(남부)
은상 한국소방안전협회인천지 부장상(4) 한국화재보험협회인천지 부장상(4)	<input type="checkbox"/> 빛나는사인유치원(공단) <input type="checkbox"/> 딸기봐봐유치원(송도) <input type="checkbox"/> 마니산유치원(강화) <input type="checkbox"/> 예원유치원 (중부)	<input type="checkbox"/> 인천마장초등학교(부평) <input type="checkbox"/> 인천간재울초등학교(서부) <input type="checkbox"/> 인천장도초등학교(공단) <input type="checkbox"/> 송해초등학교(강화)

## | Fire Safety Special Investigation |

# 화재안전특별조사

제천 밀양 화재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7월 9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약 1만여개 대상에 대하여 44개반 153명의 조사반을 구성하였으며, 조사반은 소방공무원 48명, 건축공무원 14명, 전기안전공사 4명, 기간제근로자 61명, 건축민간전문가 2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소방분야 뿐만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분야의 안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전 건축물 대장 및 내부 건축물 도면 확보 후 전기 및 가스 관련설비, 소방시설과 건축구조 등 건축물의 주요시설을 파악하는 등, 조사대상에 대한 사전자료 준비 후 조사대상처로 이동, 분야별 세부조사를 실시한다.

기존과 다르게 특별조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조사참여단 34명을 구성하여 현장 참여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

#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 **2018.7. - 2019.12** 18개월간  
 대상 화재안전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 65만 4천개 등  
 방법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합동 조사단의 현장 조사

안전 백년대계의 초석을 세우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과 함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화재발생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조사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만들어 안전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도 보겠습니다!

“소방사관의 철저여부와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전기시설이 노후로 인한 화재안전요인을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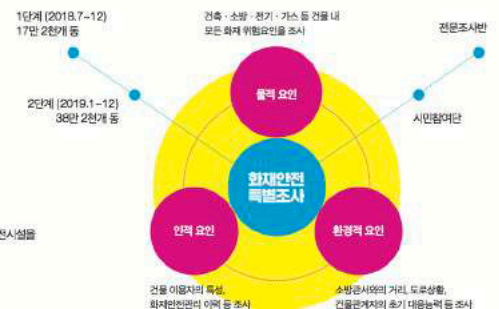
“시민의 눈으로 더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건축구조와 자재가 화재에 안전한지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 안전 백년대계의 초석을 세우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국민과 함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 조사반이 시민조사참여단과 함께 건축물의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 대형화재의 예방과 완벽한 대응을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조사하겠습니다!

### 화재안전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조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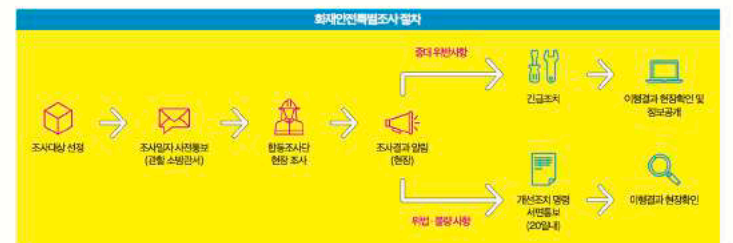
점점, 요양원, 노래방 등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17만 2천여개 등을 2018년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2019년도 88만 2천여개 등을 포함, 총 65만 4천여개 등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 건물의 화재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동안 소방시설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화재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건물의 소방안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모든 화재안전특별조사 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하고 건물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대응 활동에 활용하는 등 화재안전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공공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044-205-7441~3 서울 02-3706-1124 부산 051-780-6371~7 대구 053-780-5250~3 인천 032-870-3064 광주 062-613-8130 대전 042-270-6131~3 세종 044-300-8121~3 울산 052-229-4562 경기 031-220-2873 경기도청 031-845-4021~3 강원 033-245-5478 충북 043-220-4822 충남 041-8315-5897~9 전북 063-298-3825~6 전남 081-298-0835~4 경북 054-886-0240~2 경남 055-211-5416 강원 055-548-8322~4 제주 064-718-3542

● 화재안전특별조사: 공공서비스7 이 곳을 방문해주세요! 바랍니다. [www.nfa.go.kr/fssc](http://www.nfa.go.kr/fssc)







위의 사진은 인천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 계양소방서의 화재 안전 특별 조사반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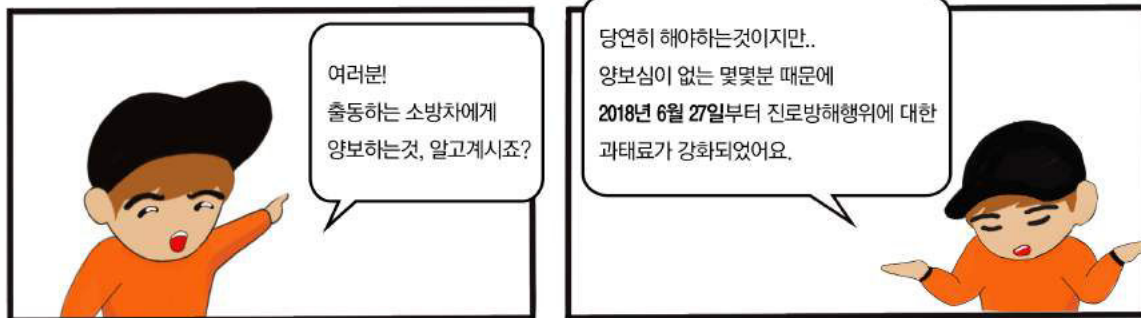
- ▶ 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반에서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제일코아 건물 내,외부 가스 안전사용을 점검하였다.
- ▶ 중부소방서에서는 7월 11일 인천 동구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인 동구노인문화센터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 ▶ 계양소방서에서도 8월 28일 계양구에 위치한 광제한의원과 머루다래 단란주점 건물을 점검하였다.

점검 시 다중이용업소 등 피난방화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수신기의 도통시험과 전원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각종 소방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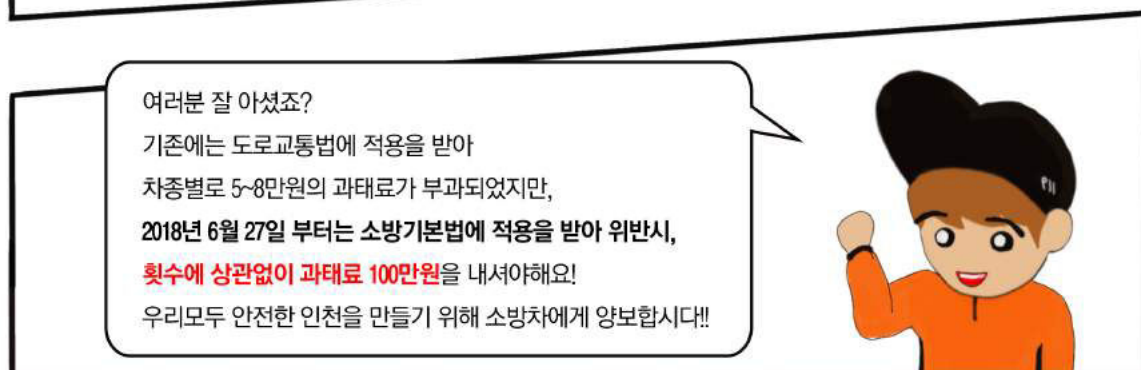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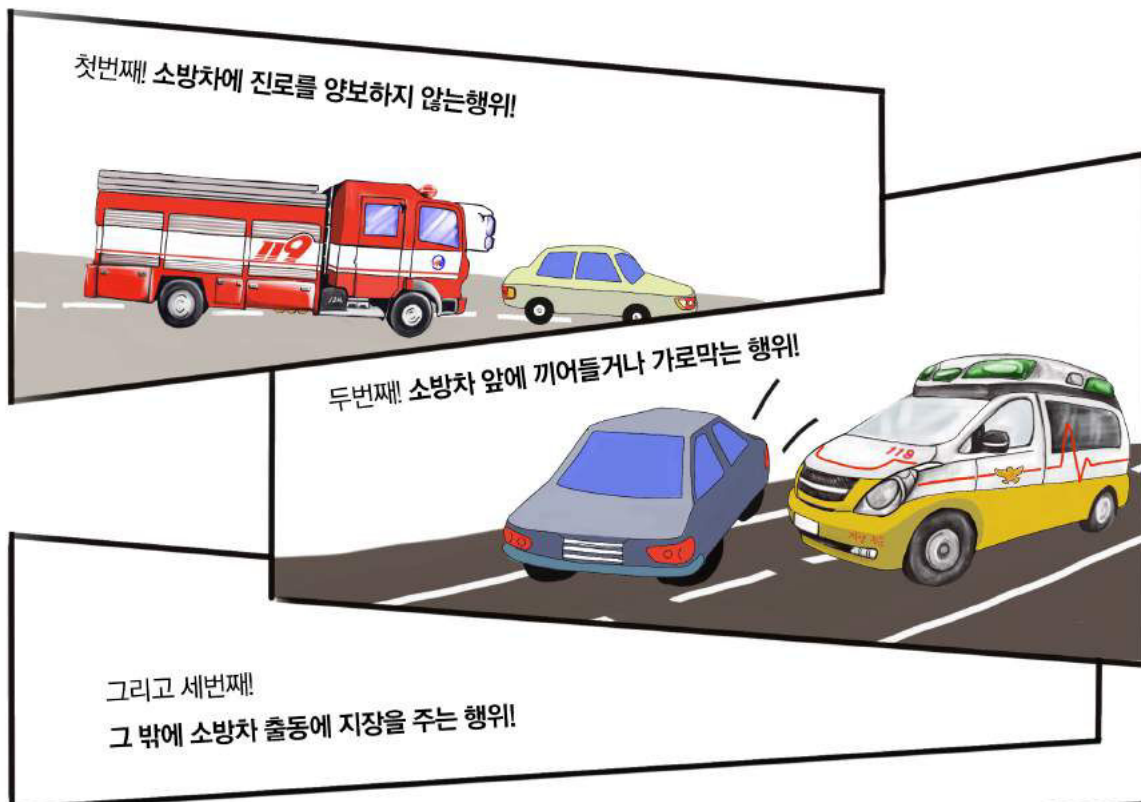
## 만화로 쉽게 만나는 새로운 소방법령

| Fire engine concession duty violation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그럼 우선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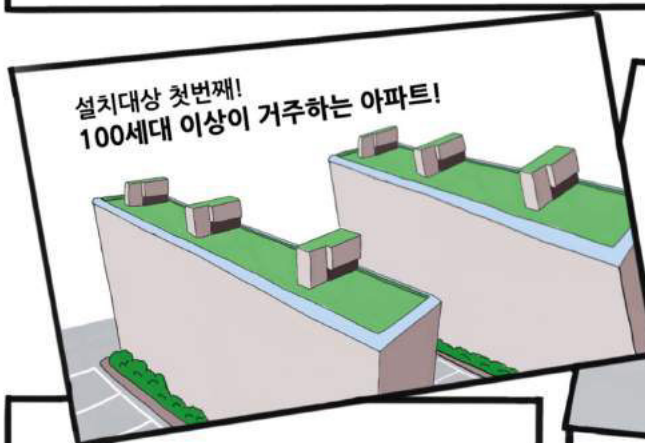
## | Fire engine zone |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공공주택 건축주 여러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이  
신설되었어요!

그럼 신설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서 어떤건지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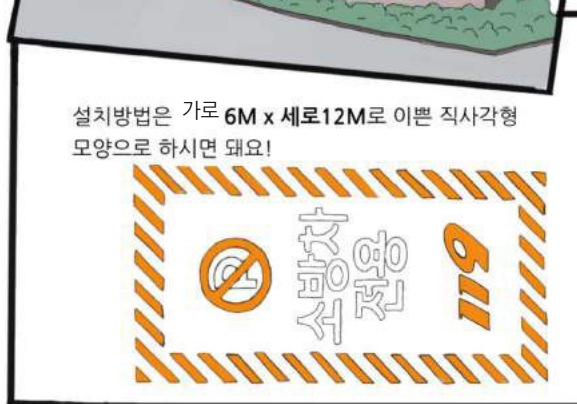
설치대상 첫번째!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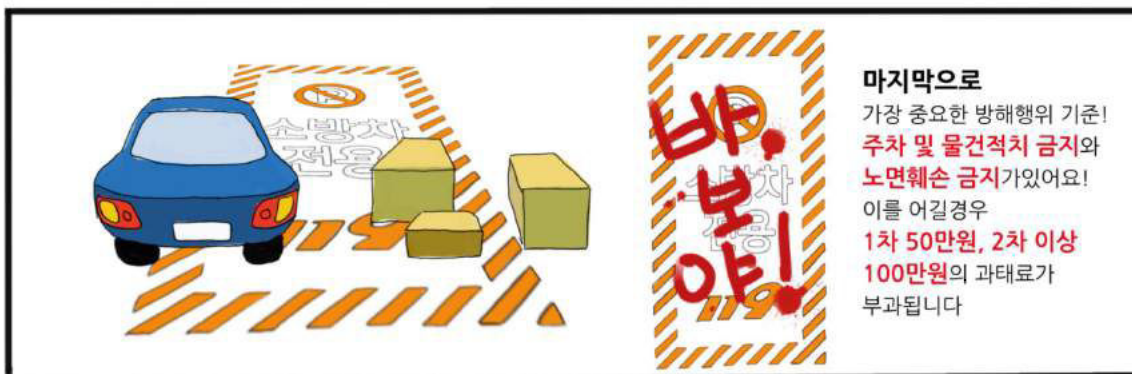
설치대상 두번째!  
3층 이상의 기숙사!



설치기준!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셔야 해요!



설치방법은 가로 6M x 세로 12M로 이쁜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해행위 기준!  
**주차 및 물건적치 금지**와  
**노면훼손 금지**가있어요!  
이를 어길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Parking · stop area violation |

주·정차 위반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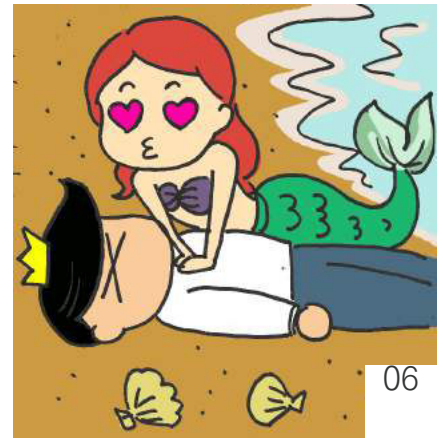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 실천하는 안전습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실천하세요!  
안전한 생활습관!

동화로 보는 안전이야기 편



## 01 비상구를 확인하세요

헨셀과 그레빌 편

- 건물 안에서는 항상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세요.
- 대피는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 혼자 행동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대피하세요.

## 02 긴급전화는 119입니다.

백설공주 편

- 화재나 누군가 다쳤을때 전화를 들고, 119를 누르세요.  
5분 이내에 소방관이 달려옵니다.
- 119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03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세요

성냥팔이 소녀 편

- 평상시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소화기의 게이지가 '녹색(정상)'인지 확인하세요.
- 노후되거나 이미 사용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 04 콘센트를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신데렐라 편

- 무질서한 전기배선과 쌓인 먼지는 화재로 이어집니다.
- 멀티탭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 장시간 외출시 콘센트 전원을 반드시 차단합니다.

## 05 가스밸브를 잠그세요

우렁각시 편

- 가스사용 전/후에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자기전에, 외출시에 반드시 밸브를 잠급니다.
- 음식 조리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합니다.

## 06 안전교육을 신청하세요

인어공주 편

- 누구나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 가족이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California "Firemen fight against flames" |

## 캘리포니아 "소방대원들 화염과 맞서 싸우다."

수천 명 이상의 산악지대 거주자들이 캘리포니아의 역대 가장 큰 산 불로부터 대피했다. 지친 소방대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최악의 산 불로 만들고 있는 거대한 바람과 싸웠다.

캘리포니아 산림청 및 소방국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 (CalFire))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이 Mendocino Complex 불은 157,450에이커 (63,700 헥타르) 로, 약 로스앤젤리스 절반 크기로 커졌으며 16000명의 주택 소유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약 93마일 (150 킬로미터)의 88개 구조물을 파괴한 이 불길로부터 피해야 했다.

이 불길의 크기는 치명적이었던 Carr 화재를 능가했는데, 이는 대략 북동쪽 100마일 (160킬로미터) 2011-2017년 주의 가뭄기간 동안 죽어버린 나무들로 뒤섞인 산림지대와 바싹 마른 숲들을 태운 역대 17번째 화재였다.

미국 기상청 (the National Weather Service)에 따르면, Carr 화재는 7월 26일 불꽃이 빙그르르 도는 "fire whirl"에서 시작되어 143mph (시속 230킬로미터)가 넘는 바람으로 막강한 토네이도의 힘을 가졌으며 나무들을 뿌리째 뽑고 전선들을 넘어뜨렸다.

Cal Fire Deputy Chief Scott McLean은, '태워진 면적 기준으로 1000단위 온도를 넘는 화염들이 캘리포니아를 2008년 이래 가장 파괴적인 산불이라 말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런 불들은 예측할 수 없고 극히 위험하다. 그 불들은 많은 이들을 죽였고, 살인마들이다," McLean을 말했다.

"이 불이 당신을 관통하거나, 비껴가거나, 덮치거나 할 것이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에 의해 소방대원 4명이 사망했는데, 2017년 전체 사망자수보다 두 배나 많은 것이다.

Cal Fire 리포트는, 사망자들 중엔 불도저 기능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불도저가 산길에서 세 번이나 미끄러져 협곡 아래로 굴렀고 국립 요세미티 공원 근처 the Ferguson 화재에서 운전사를 짓눌러버렸다고 했다. 그 보고서는 소방대원들의 '위기 평가'를 요청했다고 한다. 수일간의 약한 바람 덕에 대원들은 작은 불들을 진압할 수 있었지만, 점점 거세지고 있는 바람 때문에 'red flag' 경고 위험에 직면했고 불이 주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고조되었다.

16개 주의 소방대원들이 캘리포니아로 급히 왔고, 관계당국들은 2개의 화염으로 구성된 Mendocino Complex Fire를 대비해 3232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Carr 화재는 39 퍼센트 진압되었는데, 소방대원들은 바람이 불을 다시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 방어진역을 넓히는 중이다. 이 불은 1567개의 가옥과 다른 건물들을 파괴했고 133,924에이커 (54197 헥타르)를 태웠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산불 역사상 역대 6번째로 파괴적인 것이다.





| The only fire safety storybook in the world |

# 세상에 하나뿐인 소방안전 동화책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광민

어릴 때 부터 갖게 되는 의식이나 습관이 평생 간다는 점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으로 안전습관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어린이들이 좋아 할 요소를 찾게 되었고, 소방안전 동화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기존 유명 동화를 패러디 한다면 좀 더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동화 5편을 직접 만들어 보 았고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되는 소방안전 교육자료가 될 세상에 하나뿐 인 소방안전 동화책의 그림을 그려줄 재능기부자를 찾았고 청라 C&C미술학원에서 흔쾌히 수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동화책의 5가지 동화 이야기가 바뀌는 소방법령이나, 알리 고자 하는 안전수칙, 소방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 주게 됩니다.

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자료지만 어른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교구로 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색을 활용한 채색은 아트 테라피 기법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PTSD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모든 분들께 심신안정 치료용 기자 재로 활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직접 색칠하여 나만의 색으로 표현될 동화속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방안전 동화책의 제작 취지입 니다.

나만의 동화책과 함께 안전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The three plots of Life |

## ‘인생의 3모작’

계양소방서 박을용 서장님 및 서예동호회 소개

### 박을용 서장님 인터뷰

박을용 계양소방서장님을 만나고 왔다. 서장님은 평소에 직원들 사이에서 호인이라 불리고, 그림과 색소폰, 축구, 특히 ‘서예’에 능통하신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들어봤다.

“제가 젊을 적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오다보니까 평탄치가 않았어요. 우리세대가 가장 힘든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그래서 그런지 안정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평온하게 전념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런 삶을 살다보니까 경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며, 그 당시를 회상하는 서장님의 모습을 보니 그 당시 시대의 어려움을 간접적이거나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서장님은 계양소방서 내에서 서예동아리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본인의 글씨를 완성해가는 데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서예를 통해 성경을 필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서예는 어릴 적부터 꾸준히 해왔어요. 요즘에 태어났으면 아마 그림을 그렸겠지. 서예는 잠시 접어두고 있다가 생활에 안정이 오고 시작 하는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서예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필사를 하니 마음을 잡게 되었어요.”

“하반기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그래서 10년의 목표를 잡고 시작하게 된거예요.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다 좋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이게 되고, 나태한 마음이 최선을 다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성경을 다 필사하는 것을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책도 보고 공부도 하게 되면서 나의 완성도를 높여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10대에 이루지 못했던 내 꿈을, 인생 3모작이잖아요? 정년이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은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 이루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나처럼 젊었을 때 방향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4년을 써왔는데 이제 6년 남았어요.”

6년 남았다고 하시면서 너털웃음을 지으시는 서장님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다. 서장님은 정말 힘든 도전을 하고 계신다. 하루 4시간 정도씩 필사를 하시는데, 이게 쓰다가도 한글자라도 틀리면 4시간동안 쓴 것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4년동안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20대에 못이룬 꿈을 잊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본인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박을용 서장님은 이미 우리 인천소방직원들 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세대에 훌륭한 롤 모델이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분임에 틀림없다.



| Put one's mind at the end of one's writing |

## ‘붓 끝에 마음을 담다’

2018년 만들어진 계양소방서 서예동호회는 만취(晩翠) 김용복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1시간씩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예는 쓰는 순간의 생각과 감정들이 붓끝으로 전달되어 화선지 위에 드러나며 문자의 조형미를 표현하는 예술 활동입니다. 작품에 글씨를 쓴 사람의 품성과 개성이 그대로 녹아 글씨는 곧 그 사람과 같다(書如基人)’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동호회는 1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예뿐만 아니라 문인화, 캘리그래피 등도 함께 연습합니다. 지필묵만 있으면 언제든 즐길 수 있어서 함께 작품을 공유하고 감상하며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지도 않았고 단기간에 성취도를 보여주는 장르가 아니라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노력하고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되겠지요? 언젠가는 멋지게 전시회도 한번 해야겠어요...^^



계양소방서장 소방정 박을용 등 10명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며 긍정적인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시간으로 오늘도 붓 끝에 마음을 담아.. 한 획 그어봅니다.







| A three-year-old habit goes to eighty |

##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강화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최진석

열정이 가득했던 신입소방관 시절 기억에 남은 출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삼켜 기도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후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회의감이 들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체없이 출동하였지만 제가 현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너무나 저를 좌절시켰고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때 문득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보편화 되었다면 혹시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 중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회가 많았지만 5세 미만인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분당 100-120회, 깊이 5-6cm 이상으로 압박해야한다는 설명이 5세 미만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설명일까?’ ‘아이들에게 어쩌면 무섭고 진지한 상황인 심정지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 자료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져있어 저는 우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PPT를 다시 준비했고 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인 “신고 요청”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근무 중 출동이 없을 때 시간을 쪼개어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교육 전 5세 미만 어린이들이라 교육에 집중하기보다 어린이들 관점에서 교육용 기자재들을 많이 보여 주면서 시각적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려 하였으나 교육 당일 막상 교육이

진행이 되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집중하는 초롱초롱 눈빛, 그리고 한명의 어린아이가 나와서 마네킨에 손을 올려 가슴을 누르는데 너도 나도 빨리 하고 싶다고 손을 드는 고사리손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5세 미만 어린시절부터 응급처치에 흥미를 심어주어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다시 부모가 되어 자식들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되물려 준다면 세상 어디에서 누군가 심장이 멎는다고 해도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한 실제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소방안전교육시간에 배운 심폐소생술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Feeling rewarded today for your compliment, I am a 119 EMT |

# 당신의 칭찬에 오늘 하루도 보람을 느끼는, 저는 119구급대원입니다.

송도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사 주용권

2018년 2월 12일 10:42경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 지령을 받고 바로 출동을 했고 현장도착시 환자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지남력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로 현장에서 바로 혈당 체크한 결과 혈당이 40으로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장애를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보호자께서는 자주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을 바랐지만 저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 설명을 드린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보호자께서 저희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사례금을 주고 싶다고 하였지만 저희는 돈은 받을 수 없다며 마음만 바랬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인천소방본부 '칭찬합니다'에 글을 올렸으며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소방본부 '칭찬합니다'에 올라온 글입니다.

「2018.02.12일 오전 저의 장인이른(박00 85세)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며 말씀을 못하시고 행동에 장애를 느끼며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고 송도 소방서 119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급대원 박웅지 김태영 주용권 대원님께서 즉시 출동하셔서 저의 장인이른 상태를 보시고 곧바로 응급조치하면서 병원에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저

희는 주로 다니는 병원으로 모셔가기를 말씀드렸고 이송중 환자의 상태를 보시고 저혈당으로 쇼크 상태라면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시면서 지금 이 상태로는 다니시는 병원이 멀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인근 가까운 병원에 호송하셔서 즉시 치료를 시작하셔서 위험상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선생님께서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라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을 거라 하셨습니다. 다행히 응급대원 소방서 직원의 적절한 조치와 상황판단을 잘 하셔서 저의 장인이른께서는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시는 구급대원 여러분께 이 지면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대원여러분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 바랍니다. 미래구급대원께 다신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7년 11월 27일에 들어온 신규 119 구급대원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소방관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저의 일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Long for their lives! |

## 그들의 삶을 동경하라!

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최민석

2005년 소방공무원이 된 이후 줄곧 화재현장을 누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화마와 싸웠다. 화재 현장에서 오는 보람과 성취는 나의 20대 시절의 다바쳐도 좋을 만큼 불꽃같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느 순간 화재현장과 동떨어져 부서이동으로 사무직 근무를 하게 되면서, 살아 있음을 느끼던 화재현장 속 불꽃같은 시간들과 멀어지고, 밀려오는 행정 업무와 씨름하며 결혼과 진급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들 속에서 나의 30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년부터 직장동료의 순직, 친한 친구의 죽음을 통해 치유하기 힘든 수면장애와 우울감, 무기력함이 몰려왔다. 늘 열정적으로 생활해오던 내가 웃음을 잃기 시작했던 것도 그 즈음이었다. 정신과와 심리상담센터를 오가며 치료받으며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 때 담당의사는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는 동시에 취미 활동을 갖기를 권했고, 그때 연극을 떠올리게 된 건 아마도 당연한 결과였다. 대학시절 연극동아리를 시작으로 대학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한 내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연극, 그 연극을 서른셋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설레임이 생겼다.

휴직기간 1년, 시한부 도전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2015년도 소방서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리고 곧바로 연기의 귀재들이 모여 있는 대학로에서 여러 번의 오디션을 걸쳐서 프로배우들과 연기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냈다. 땀 흘리는 연습시간을 보내고 무대에 서서 찬란한 햇살과도 같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배우들과 연기하게 되자, 내게 뜨거운 불꽃같은 시간이 되돌아 왔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연극을 통해 살아 있는 것을 느끼며 웃음도 되찾은 것도 큰 소득이었지만, ‘연극을 하면서 찾아온 설레임, 불꽃같은 시간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다시 찾아온 것일까?’라는 질문의 대답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건 바로 내가 연극을 하면서 배우로 서 큰 업적을 남기려 하기 보단 ‘그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삶에 대한 동경이 가져다준 선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성과주의와 결과주의에 빠져 그들이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설레임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 나 역시 대단한 업무 성과를 내고 싶거나 적어도 남들보다 조금은 뛰어난 인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스스로를 옳아매면서 지내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다. “그 강박을 벗어나 결과가 아닌 과정속의 삶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

나는 빈센트 반고흐 같은 위대한 예술가나, 영화 ‘분노의 역류’ 주인공 스티븐 같은 용맹한 소방관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들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었다. 일의 업적을 쫓지 말고, 그 일속에 사는 삶을 동경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열쇠가 아닐까?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지금, 소방관으로 화재현장을 누비며 연극을 하는 지금 나의 삶을.. 나는 동경한다.





| Creating a Culture of Working Life with Cultural Activities |

# 문화활동으로 활기찬 직장생활 문화 조성!

공단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유진화

공단소방서. 전 직원 문화 활동을 권장하는 소방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희생하는 극한직군 종사자들을 위한 공연 개최 및 참석과 소방관의 지친일상을 달래주는 다양한 공연관람, 화제,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음악회 등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공단 직원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 다. 직원들의 눈과 귀가 호강하는 소방서, 공단소방서입니다!

「인천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2017 대표 레퍼토리 혼합공연」 관람



2018년 「인천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 화재진압전술 경연대회를 참가한 후

영종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사 황준연



한달 전, 화재진압전술 자체 경연대회 문서가 센터에 시달되었다. 화재진압 전술경연대회를 알리는 문서였다. 나는 운서센터에서 영종소방서를 대표하는 선수로 뽑혔고, 이에 며칠 뒤 영종소방서에 참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를 하고 각자 목표를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6명선수 모두 목표는 같았다. 1등을 하여 개인과 서의 명예를 높이는 것. 그렇게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하루에 10시간 넘는 훈련을 강행했다. 다들 강행군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목표를 생각하며 오로지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서장님께서 힘이 되는 식사를 사주셨고, 뿐만 아니라 내근팀, 각 센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다. 우리는 지원 받은 만큼 1등을 꼭 하자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경연대회 1주 전 다른 팀이 연습했던 것을 볼 시간이 있었다. 충격이었다. 우리 상황은 우물 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회의를 하였고, 앞만 보고 달렸던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천천히 해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점요인을 중심으로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곧 경연 하루 전날이 되었다.

소방학교로 가서 경연대회 준비를 도와주고, 부분적인 연습을 하였다. 연습 때 잘 굴러지던 수관도 안 굴러지고, 로프매듭법도 왜 그렇게 헛갈리는지 많이 혼란스러웠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다. 다들 지친모습으로 집으로 향하는데 지휘자였던 센터장님께서 내일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자며 우항청심환을 사다주셨다.

그 말에 우리들은 자신감이 차올랐다. 다음날 마침내 경연대회가 시작되고, 청심환을 먹고 적당한 긴장 속에 차를 기다렸다. 마침내 우리서 차례가 되었다. 이 경연 20분을 위해 우리는 한달간을 노력을 했고, 열매를 맺을 때였다. 적당한 긴장 속에 선수들은 차례로 섰고, 지휘자의 멘트로 경연은 시작되었다.

“실시!”라는 말과 함께 머릿속은 하얗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연습했던 대로 몸이 움직이고 있었고, 큰 실수 없이 경연을 마치게 되었다. 그제서야 보이는 응원 오신 영종소방서 응원팀. 다들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를 다독여주며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었다.

모든 팀들의 경연이 끝나고, 순위발표만 남은 차례. 모두 긴장하였다. “영종소방서 2등!”이라는 심판관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선수들과 응원팀은 하나가 되어 기쁨을 만끽하였다. 1등이 아니어서 아쉽기도 했지만, 2등이라는 훌륭한 결과에 만족하는 눈빛이었다.

그리하여 길었던 경연대회가 끝나고, 우리 선수들은 경연 다음날부터 각자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 소방공무원의 모습으로 복귀하였다. 우리는 가끔 모여 얘기한다. 진정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한 발자국 다가갔다고.



| As a EMT |

## 구급대원으로서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안옥배

1997년 간호사 특별채용으로 인천소방에 입문해 구급대원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해 많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들 예약이송으로 편리하게 병원진료 받도록 도왔다.

공단소방서에서 근무할 때 예약이송 환자 중 뇌병변 7세 여아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해 주 2회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가 있었다.

약 2년 동안 예약이송을 하게 되면서 환자의 가정형편을 알게 되었고, 주2회 이송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

환아의 어머니는 딸의 치료비와 혈우병을 앓고 있는 남편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정작 본인은 하루 세끼 중 거의 매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재활치료 후 돌아오는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보호자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또한 의료보험료가 체납된 것을 알게 되어 구급대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의료보험료를 수납했다. 그 후 환아의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여동생을 출산했다.

둘째 아이 출산했을 때와 백일 때 축하하러 가서 아기 옷을 선물해 주었다. 20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환아의 어머니가 감사하다며 피자 10판을 사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과 살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 뇌병변 환아는 현재 27세이며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이며 둘째 딸은 고3으로 학업에 열심히 하고 있으며, 현재 피자가게를 운영하며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한다.





| A praying mind |

## 기도하는마음으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원호 어머니님





오늘도 기도하며.

요즘 예년에 없던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물난리, 불난리, 폭염 피해 등 지구촌 곳곳에서 난리를 겪고 있다는 뉴스가 가뜰이나 덥고 짜증나는 불쾌지수를 더욱 높여준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인간의 무관심으로 일어나는 인재 피해는 마음을 더욱 안타깝고 때론 분노마저 치밀게 한다.


언제 어디서 예고 없이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를 대비 하여 일 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한 순간도 마음의 무장을 풀지 못하고 대기조의 자세로 살아가는 소방·구조대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언젠가 있었던 강아지 고양이 구하려다 추락사 당하는 또 다른 인재의 피해자가 되게 하지는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그때 119에 전화를 했던 그분도 평생 괴로운 맘으로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소방관 아들을 둔 어미의 이기심만은 아니란 걸 소방 가족 들은 알아주리라 믿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방관 구조대원들이 구조 활동 중에 희생 당했는가.. 그 소식 접할 때 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저미곤 했었다.

가신 분에 대한 애석한 마음과 부모 형제 처자식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아는 소방관의 가족이기에 ‘삐오삐오-’ 소리 지르며 내달리는 소방차 소리에도 가슴이 떨리고 어디서 화재가 났다는 TV 뉴스에도 신경이 곤두선다.

아들 근무지 구역에서 화재 소식이 들리면 지금쯤 활활 타오르는 화마를 상대로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화재를 당한 쪽도 진화 하러간 대원들도 모두 무사해야 한다고 가슴 조이며 빌고 또 빈다. 무사히 귀가 했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주변을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불행한 사고 당하지 않기를 당부하며 내일도 또 다음 날도 사고 없는 날들이기를 기원한다.

2018. 6. 27.  


| After the Meaningful Contest of Children's Song |

## 땀과 웃음의 동요대회를 마치고



청천2동 어린이집 교사 김빛나

저는 제17회 인천광역시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부평소방서 유치부 대표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공립 청천2동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부평구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된 것도 영광이지만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동요대회입니다. 우리 청천2동어린이집 아이들도 좋은 뜻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동요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하려면 제시된 135곡의 소방동요 중 한 곡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135곡의 소방동요를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놀라웠던 점은 135곡의 모든 소방동요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 한 번 들으면 귀가에 맴돌게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조건 신나는 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곡은 웅장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어떤 곡은 경쾌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또 어떤 곡은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느낌이 드는 곡도 있었습니다. 가사 또한 아이들이 기억하기 쉬운 말로 쓰여 있고, 그 안에 다양한 메시지가 들어있었

습니다. 너무 좋은 동요가 많아서 곡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어린이들이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즐기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반응이 좋은 곡으로 선정하였고, 바로 그 곡이 6집에 수록된 ‘우리는 안전 지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보통의 어린이들은 소방관이라 하면 ‘불이 났을 때 불을 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소방관은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봉사 등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요.

이 동요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소방관을 ‘안전 지킴이’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요를 통해 우리의 무관심이 더 큰 재난과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희망을 갖게 된 고마운 동요입니다.

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곡을 선정하여 연습을 시작하였지만 어린이들 29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음정, 박자, 가사를 익히면서 퍼포먼스를 연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퍼포먼스를 힘들어하는 6세 동생에게 7세 형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도 했고, 음정과 박자를 맞추기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은 서로 박수를 쳐가면서 서로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등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통해 소속감을 경험하며 자신감과 단결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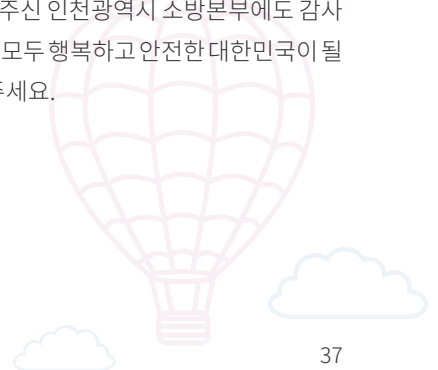




마냥 즐겁기만 하던 연습기간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대회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몇몇 어린이들은 조금씩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평소방서 소방홍보팀장님과 반장님이 직접 원으로 방문하셔서 맛있는 간식을 주시며 아이들을 격려해 주셨고, 아이들은 소방관 아저씨들이 우리에게 박수도 쳐 주시고, 잘 했다고 칭찬해 주셨다면서 뿌듯해하며 더 힘을 내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동요 경연대회 장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대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이고 영상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신 섬세한 부평소방서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과 기관은 물론 지도교사에게도 수상 기회를 주신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힘내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관. 파이팅!!





| Why did you choose to Firefighter |

## 그대 왜 소방을 선택했나

인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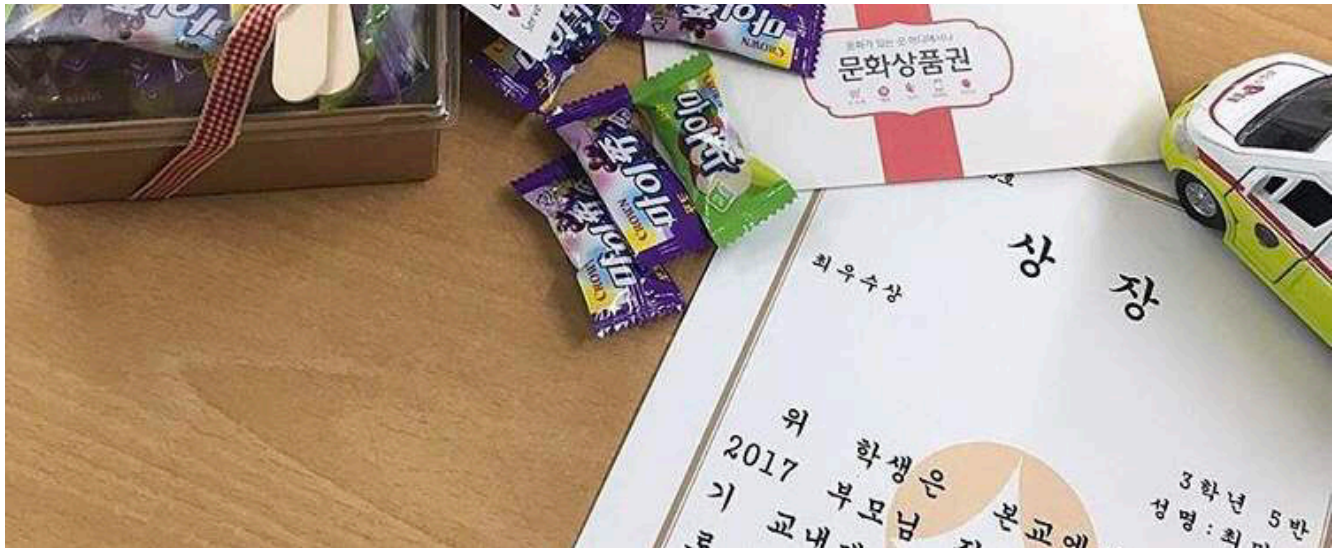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인성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최민주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꿈을 갖기 전에는 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유치원교사의 꿈에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는 길을 가다가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만난 사건과 ‘심장이 뒹다’ TV프로그램을 접한 뒤부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오는 날 하교를 하다가 도로에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쓰러진 할아버지가 걱정돼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괜찮으세요?”라고 여쭙고 바로 할아버지를 일으켜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오는 날 우산도 없이 급하게 뛰어가시다 앞으로 넘어지셨다고 해서 가방에 있던 구급함을 꺼내 약을 발라드리고 밴드를 붙여드렸습니다.

저는 상황이 정리되고 집에 가는데 그때의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일으키고 난 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사람이 저 외엔 아무도 없었고 다들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방관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상처를 받았었고 ‘할아버지께서 혹시나 심정지처럼 중증환자였다면 도움을 받지 못한 할아버지는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화가 났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 엄마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그때 도와드렸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몸은 저번 보다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웃으시면서 몇 번이고 거듭해 고맙다는 말을 전하였는데, 그때의 뿌듯함과 몽글몽글함은 처음 느껴보던 감정이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을 구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이 뛴다’라는 TV프로그램을 본 뒤부터는 확고히 소방관의 길을 걷고 싶어졌습니다. ‘심장이 뛴다’ 리얼리티 소방 프로그램은 안전사고가 하염없이 많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아픈 사람들에게 한줄기의 빛이 되고자 하는 소방대원들이 소개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나오는 소방대원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람 있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소방에 대한 애정이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소방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학교에서 하는 진로와 관련된 대회를 많이 나갑니다. 현재 ‘응답하라 119’라는 보건 동아리에 속해 있어 동아리 선배님, 선생님과 심폐소생술교육 등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보건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방학 중엔 소방서 봉사활동을 다니고, 소방관을 꿈꿔오는 각 지역의 사람들과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며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응급구조학과를 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소방관이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과 존경스러운 모든 소방관님들의 뒤를 잇는 현명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관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님들 힘내세요!



나는 소방관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는  
틀리지 않아도

우리는

당신을 구하는

나는 그런

대한민국

소방관이다

